

#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아기장수 설화 인유와 치유공동체\*

임보람\*\*

## 【 차 례 】

- I. 들어가며
- II. 무덤과 섬: 죽음의 인유 공간
- III. 날개와 용마: 추락과 상승의 인유 복합체
- IV. 삼킴과 울음소리: 인유의 치유 가능성
- V. 나가며

## 국문초록

이 글은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2003)을 아기장수 설화를 인유(allusion)한 텍스트로 읽어가면서, 두 텍스트가 만들어내는 은유적 통합(metaphorical union)이 해석상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치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목적은 다음의 궁극점에서 출발했다. 작가 이청준은 왜 아기장수 설화를 인유하여 소설을 구성했는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한국에서 전승되는 보편적인 아기장수 설화의 서사를 나누어 배치하고, 소설의 중심 서사에는 왜 제주도에서만 전승되는 아기장수 설화를 배치했는가? 두 설화를 통한 대비의 효과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인유를 통해 구하면서, 설화의 인유가 주제화에 어떻게 기능하는지 고찰하면서 논의를 진행했다.

본론에서는 인유된 텍스트(아기장수 설화와 제주도 아기장수 설화)와 인유하는 텍스트(『신화를 삼킨 섬』)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미지가 서로 충돌하여 은유적 통합을 이루어가는지 과정을 세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각 이미지를 ‘무덤과 섬’, ‘날개와 용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2628).

\*\* 단독저자,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jinjjaworld@naver.com

마’, ‘삼김과 울음소리’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 복합 이미지들이 인유적 공간(allusive space)을 형성하고, 인물 행위의 의미를 맥락화하고, 마지막으로 주제화에 기여하면서 독자를 치유의 관점으로 이끄는 과정을 밝혀보았다.

열쇠어 :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아기장수 설화, 제주도, 인유, 치유공동체

## I. 들어가며

이 글은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2003)을 아기장수 설화를 인유(allusion)한 텍스트로 읽어가면서, 두 텍스트가 만들어내는 은유적 통합(metaphorical union)이 해석상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치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sup>1)</sup> 이 목적은 다음의 궁금증에서 출발했다. 작가 이청준은 왜 아기장수 설화를 인유하여 소설을 구성했는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는 한국에서 전승되는 보편적인 아기장수 설화의 서사를 나누어 배치하고, 소설의 중심 서사에는 왜 제주도에서만 전승되는 아기장수 설화를 배치했는가? 두 설화를 통한 대비의 효과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인유를 통해 구하면서, 이 인유가 주제화에 어떻게 기능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신화를 삼킨 섬』의 공간 배경은 제주도이고, 시간 배경은 제3공화국의 몰락 이후부터 5·18 광주항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시간(1979.10.~1980.5.)이다. 중심 서사는 4·3 양민학살사건(1948)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씻김굿의 진행 방식을 취한다.<sup>2)</sup> 작가는 서사의 흐름을 “매듭-씻

1) 이 글에서의 ‘인유’는 앨런 H. 파스코가 정의한 문학 속에서 발생하는 인유인 ‘문학적 인유’이다. 이 글은 인유는 텍스트에 의해 나타나야만 하고 그것의 의미에 통합되어야만 한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작가가 『신화를 삼킨 섬』에서 인유의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했다고 가정하면서 그 요소들을 읽어내어 그 증거를 찾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Allan H. Pasco, *Allusion: A Literary Graft*, Rookwood Press, 2002. p.6.

2) 소설은 제주도의 역사 씻기기 사업을 핵사건으로 하여 제주의 역사적 상처에 대한 위로와 치유를 바탕으로 서사를 추동해간다. “유사 이래 우리 제주도는 저 몽고군의 내침에서부터 근현세로는 2만여 명의 아까운 인명이 희생된 1947,8년 전후의 4·3환

김-풀이의 굿마당의 이미지”<sup>3)</sup>로 구축하면서, 아기장수 설화를 비롯해 다양한 제주도 설화들을 인유하면서 해원의 서사를 추동시켜나간다.<sup>4)</sup> 이러한 의도에서 상처와 아픔, 치유와 위로의 구조가 서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기호학적 소통과정임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반도에 공통으로 전해지는 아기장수 설화는 지역마다 내용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아기장수가 지배계급에 의해 역적으로 몰려 구원자로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된다는 스토리는 공통적이다.<sup>5)</sup>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서 인유된 아기장수 설화의 스토리도 이러

---

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외침과 내부 분란을 겪었고, 감당할 길 없는 난국 속에 이루 헤아릴 길 없는 도민들의 희생이 있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불의하고 억울한 희생자들의 수많은 원혼은 아직도 편안히 눈을 감지 못한 채 이 제주 산화와 구천을 떠돌고 있어, 우리 후인들을 무한히 부끄럽고 죄스럽고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작금 거국적으로 펼쳐지는 역사 씻기기 사업을 계기로 오늘 이 같은 모든 의문사와 행방불명 무주고혼들을 위한 위령과 진혼의 자리를 마련하여 이 섬 선인들의 원한을 말끔히 해원시켜드리고, 그럼으로써 우리 전 도민 후인들의 삶의 안녕과 발전을 도모코자 하오니, 간절히 기원하옵건대 천지신명께서는 그 뜻을 거두어 오늘의 행사를 무사히 잘 치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고 보우해주시옵소서.”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문학과 지성사, 2011, 336쪽. 이후부터는 쪽수만 표기하겠음.

- 3) 한순미, 「역사적 물음을 구조화하는 이미지의 위상학—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39, 2009, 237쪽.
- 4) 정요선, 고종민, 추만우는 초점 화자로서 서사를 이끌어간다. 고종민과 추만우의 아버지는 4·3사건을 체험한 1세대이다. 고종민은 아버지의 고향인 제주도를 찾아온 재일 교포로 민속학을 연구하며 4·3사건에 관심을 둔다. 추만우는 제주 티주 당골 추심방의 아들로 무업을 이어받는 인물이다. 정요선은 육지부 무당의 아들로 국가에서 계획한 4·3 역사 씻기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제주도를 찾아온다. 작가는 이들 중에서 외지인인 정요선과 고종민의 시선으로 제주도의 비극성을 강조하면서 씻김굿의 의미를 밝혀간다. 중심 사건인 4·3 역사 씻기기 사업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신군부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육지 무당인 유정남과 그의 아들 정요선은 큰당집이 주관하는 4·3 ‘역사 씻기기’ 사업을 맡아 물에서 제주로 건너온다. 이들은 4.3사건의 희생자 목록에서 굿거리 일감을 찾지만 청죽회와 한얼회의 편 가르기에 치진 제주 사람들은 누구도 굿을 하려 들지 않는다. 큰당집 지부 사람인 도청 문화진흥과 이과장의 주선으로 유정남은 한라산에서 발견된 혼백의 굿을 치르기로 하고, 위령제의 마지막 행사로 굿판을 벌이기로 한다. 한라산 유골을 둘러싸고 편 가르기가 벌어지고, 위령제 행사에서는 유골함 탈취극이 벌어진다. 유정남은 위령제 굿판을 끝내고 정요선과 함께 그의 아버지가 묻힌 소록도 만령당으로 향한다.
- 5) 이청준은 「비화밀교」, 「지판의 소」, 『신화를 삼킨 섬』, 「아기장수의 꿈」 등에서 아기

하다. 이와 달리 중심 서사에서 인유된 제주도 아기장수 설화에서는 아기장수가 겪는 구체화된다. 이 설화에서는 아기장수 자리에 고려시대 실존했던 인물인 김통정과 김방경이 위치한다.<sup>6)</sup> 두 장수의 도술 겨루기와 무훈담이 중심 스토리가 되고,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그들 자신이 포기하는 장면이 강조된다. 이처럼 두 설화에서 아기장수는 신격화되기 어려운 모습으로 형상화되었지만, 그럼에도 『신화를 삼킨 섬』에서 아기장수는 제주도민들에 의해 신의 자격을 지닌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인유들이 활용된다. 즉,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중심 서사에서 활용되는 설화의 다양한 서사소(敍事素)와 이미지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병행 인유(parallel allusions)로서 인유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sup>7)</sup> 여기에 덧붙여 인유된 신화들, 예를 들어 제주도의 서사무가인 해정리 ‘변심방 뱀당신’, 예송리 본향당신 ‘초감제 본풀이’ 등과 육지부 씻김굿의 무가 등은 수사적 상황인 굿판에서 활용된다.

이 글은 ‘인유’를 ‘문학적 인유’로서, 인유된 텍스트에서 잘라내어 인유

---

장수 설화를 자주 다루어왔다. 그는 이 작품들에서 설화에 나타난 다양한 상징적 이미지를 해석소로 활용한다.

- 6) 인유된 제주도 설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조 때의 일이다. 이 나라 어느 마을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과수택은 지렁이가 밤마다 사람으로 변해 찾아와 잠자리를 같이하고 간 것을 알게 됐지만, 그럴수록 그 지렁이가 징그럽고 끔찍스러워 그만 무참하게 죽여버리고 말았다. 마침내는 외모부터가 그지없는 옥동자를 하나 낳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의 온몸에 번쩍번쩍 비늘이 덮여 있고, 양쪽 겨드랑이 밑에선 조그만 날개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과수택은 몹시 겁이 났지만, 그것을 자신의 운명이라 여기고 일체 그런 사실을 숨긴 채 정성껏 아이를 길렀다. 김통정은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려는 삼별초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하지만 끝내 관군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남은 군졸들과 이 제주도로 건너왔다. 어느 해에 김방경 장군이 거느린 고려군이 김통정을 잡으러 갔다. 김방경은 칼을 빼어 그 틈새로 김통정의 목을 찔러 베어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며 땅바닥으로 떨어져 나뉘는 김통정의 머리가 다시 몸으로 달라붙지 못하도록 젓가루를 뿌려 두었다. 김방경 장군은 김통정의 아내를 붙잡아다 뱃속에 든 아이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어미와 아이를 함께 태워 죽이니 매 새끼 아홉 마리가 죽어 떨어졌다. 요약은 다음을 참조하였다. 주지영, 「『신화』와 ‘전설’ 콘텐츠의 소설적 변용과 의미화 전략-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제19호, 구보학회, 2018, 564~565쪽.

- 7) op.cit, p.20.

한 텍스트에 접목하여 새로운 저장의 내부 공간을 형성하는 방식의 내재적 기능으로 정의한다.<sup>8)</sup> 정리하면, ‘인유’는 독자에게 특별한 텍스트적 기호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석과 그 결과의 과정을 고려하게 하는 장치로서 기능한다.<sup>9)</sup> 이 인유가 분석 개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파스코가 강조했듯이 텍스트를 해석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면서 인유의 해석 지점들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하는 독자의 능력이다.<sup>10)</sup> 이상으로 이 글은 작가 이청준이 인유의 해석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인유 복합체’(allusive complex)를 형성해가는 독자의 능력을 전제하고 있다고 가정하며<sup>11)</sup> 설화의 인유가 서술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는 양상들을 밝혀보고자 한다.<sup>12)</sup>

이어지는 본론에서는 인유된 텍스트(아기장수 설화와 제주도 아기장수 설화)와 인유하는 텍스트(『신화를 삼킨 섬』)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인유의 이미지가 서로 충돌하여 ‘은유적 통합’(metaphorical union)<sup>13)</sup>을 이루어가는지 과정을 세 측면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인유의 이미지를 ‘무덤과 섬’, ‘날개와 용마’, ‘삼김과 울음소리’로 나누어, 이 각 이미지들이 인유적 공간(allusive space)<sup>14)</sup>을 형성하여, 상승과 추락의 인유 통합체를

8) op.cit, p.12.

9) Ibid., p.5.

10) “(독자에게) 인유는 인지되어야 한다. (...) 인식할 수 없는 인유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만약 인유가 두 개의 독립적인 지시 대상(referents) 사이의 관계로 구성되는 것이라면, 그 관계는 분명히 인쇄된 텍스트로 국한된 범위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오직 독자만이 인유의 발생을 가능하게 하는 그 관련성을 밝힐 수 있다.” Ibid, p.18.

11) 인유의 해석 과정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인유 복합체’(allusive complex)로서 인유의 이미지들이 텍스트에 의해 다른 패턴으로 재형성될 때, 생성되는 이미지의 패턴이다. Pasco, op.cit, p.80.

12) 이소연 역시 『신화를 삼킨 섬』에 등장하는 다양한 신화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이 신화를 소설의 미학적 ‘장치’로 이해한다. 이소연,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신화적 리얼리즘 양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74집, 한국문화회, 2016, 227쪽.

13) 은유적인 통합은 독자의 마음에서 발생하는 의미의 중요성을 확장한다. Ibid, p.6, p.58.

14) 인유적 공간은 독자의 읽기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마음의 장소(metal place)로서, 그것을 발생시키는 언어의 지배력을 벗어나 존재한다. 왜냐면 독자가 해석해가는 자유-유희(free-platy)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Ibid., pp.40~47.

형성하고, 인물들의 행위를 맥락화하여 상처와 치유의 구조를 제시하면서, 치유공동체의 가능성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천착해 내려고 한다.

## Ⅱ. 무덤과 섬: 죽음의 인유 공간

『신화를 삼킨 섬』의 서사적 공간인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략과 내부 분란을 겪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도민이 희생되었다. 이 비극의 역사는 세 층위에서 인유적 뒷받침을 얻어 서사적 공간인 제주도를 인유 공간(allusive space)으로 이동시킨다. 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첫째, 아기장수 설화에서의 무덤 이미지 둘째, 제주도 아기장수 설화에서 김통정이 제주도로 들어와 건설한 해상왕궁 이미지 셋째, 작가이청준이 인용했다고 직접 밝힌 「4·3사건 희생자 목록」<sup>15)</sup> 문건이다.

첫째, 무덤 이미지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서 나타난다.

① 그런데 일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부부가 아이를 바위틈 속에 생매장하고 돌아와 석 달하고 아흐레 째 백 날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이런저런 뒷소문이 번진 끝에 뒤늦게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관가 군졸들이 일이 그렇게 된 줄 모르고 마을로 아이를 잡으러 몰려왔다. 그리고 이미 아이가 죽어 뒷산에 묻었다는 말을 들곤 그 아비를 앞세워 무덤까지 찾아갔다. (8) (밑줄 강조는 인용자)

② ‘큰당집’사람들이 미리 그렇게 여관을 잡아준 탓이리라. 섬 터주 당골 추 심방네 집은 생각보다 멀지 않았다. 정요선이 그의 어머니 유정남과 그녀의 신딸 오순임 등과 함께 들어 묵고 있는 제주시의 서쪽 변두리 여관에서 도보로 반 시간 남짓 거리, 며칠 전 일행 세 사람이 육지부 남쪽 끝 녹동 포

---

15) 작가는 “『4·3은 말한다』(제민일보) 일부”를 “줄작을 위해 읽고 참고했을 뿐 아니라 더러는 원문과 유사하게 혹은 그대로 인용했음을 밝”혔다.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문학과 지성사, 2011, 391쪽. 이후부터는 쪽수만 표기하겠음.

구로부터 완도와 청산을 거쳐 열 시간 가까운 긴 뱃길과 심한 멀미 끝에 초주검 꼴로 배를 내린 제주항 서쪽 교외 지역 용두리 해변가 한 작은 언덕배기에 그의 초옥이 납작 올라 앉아 있었다. (9)

③ 관과의 군졸들이 아버지를 앞세워 찾아간 바위는 다시 옛날처럼 틈새가 닫혀 있어 아이의 무덤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아이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이 바위 속에 아이를 묻었던 말이나! 네 말이 사실이라면 이 바위 속을 갈라 보일 방법이 있겠구나. 그 방법을 말하여라. (388)

위의 인용문 ①은 프롤로그에 해당하며, 아기장수가 부모에 의해 생매장을 당하고 군졸들에게 다시 죽임을 당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보여준다. 인용문 ②는 소설의 첫 장에 해당하는 서사의 시작 부분이다. 육지에서 4·3 역사 씻기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제주도로 오기까지의 상황을 주인공 정요선의 시선으로 서술하는 부분이다. ③은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장면이다. 소설은 ①과 ③사이에 ②를 끼워넣은 모습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방식으로 인해 ②에 해당하는 서사적 공간인 제주도의 이미지는 인유된 ①과 ③에서 나타나는 무덤의 이미지에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여기에 제주도 아기장수 설화에서 나타나는 궁궐과 해상왕궁의 이미지가 덧붙여 지면서 제주도 이미지의 비극성이 증폭된다.

김통정은 자라면서 더욱 재주가 비범하여 활을 잘 쏘는 것은 물론 하늘을 날아다니는 도술까지 곧잘 부려 마침내는 큰 장수로 자라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려는 삼별초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관군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궁지에 몰리게 되어 육지를 버리고 남은 군졸들과 함께 진도를 거쳐 이 제주도로 건너왔다.

제주도로 들어온 김통정은 첫 상륙지 군항리에서 마땅한 진 터를 찾아 산속으로 올라가다 항바들이라는 요지를 발견하여 그곳에 안팎의 토성을 쌓아 두르고 궁궐을 함께 지어 스스로 ‘해상왕국’이라 칭하였다. 그리고 이후부터 이 제주 섬을 다스리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되 돈이나 쌀이 아니라

반드시 잿가루 닷 되와 빗자루 한 자루씩을 바치게 하였다. (171-172)

비범하게 탄생한 김통정은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려는 삼별초의 우두머리가 되었지만, 그의 세력을 두려워한 관군에 쫓겨 제주도로 건너온다. 그는 항바들이라는 요지를 발견하여 궁궐을 지어 자신이 가진 힘을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한다. 도민들에게 세금을 수탈하면서 해상왕국으로 칭하며 이 요지를 절대적 왕권의 상징으로 만든다.

설화에서 인용된 무덤, 궁궐, 해상왕국 등의 이미지는 인용된 「제주 4·3 사건 희생자 목록」 문건에서 나타나는 이미지와 충돌하면서 은유적 통합을 이루어간다. 이 통합의 과정에서 부각되는 것은 시간성이다. 서사의 층위에서 고려 몽고군의 침입, 4·3 양민학살의 역사와 설화의 시간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면서, 서로 엉키고 이어지면서 독자에게 서사적 현재의 시간과 혼재되도록 한다. 이 시간 속에서 4·3사건 희생자 목록에서 형상화된 희생자들은 무덤으로 은유된 바위 속에서 죽어가는 아기장수, 섬의 외부와 내부세력의 착취와 차별 구조의 밑단에서 고통받는 제주도민들의 모습과 결합된다.

① 토벌대는 끝내 우리 집까지 불을 지르러 왔고, 나는 겁에 질려 덮어놓고 살려줍사고 비는데, 순간 총알이 내 옆구리를 뚫었다. 딸아이를 업은 채 쓰러지는 나를 보고 아홉 살 난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내게로 달려들었고, 토벌대는 그 아이를 향해 다시 총을 쏘았다……(…)

바깥일을 마치고 막 집으로 들어서려는데 별안간 토벌대가 들이닥쳐 총을 쏘아대고 집에 불을 놓았다. 나는 마침 식구들 맨 뒤 끝에 처져 따라오다가 급히 문 뒤로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고 난 뒤 안마당으로 들어가보니, 앞서 가던 식구들은 이미 다 숨져 있고, 한 살배기 여동생 하나만 불길 속 마루 위 애기 구덕 속에서 울고 있었다. (청죽회 조사자료, 제중일보 자료실) (43-44)



② 하지만 줄지에 바위가 갈라지고 세찬 햇빛과 바깥바람이 뿔쳐들자 장 줄들은 일시에 움직임을 멈추고 힘없이 스러져 갔고, 장수의 모습을 하고 꿇어앉은 아들은 반쯤 쳐들린 머리와 무릎을 마저 펴 올려 일어서지 못하고 하늘이 무너지듯한 큰 한숨소리와 함께 그대로 무너져 내려앉으며 주위를 시뻘건 핏물로 물들였다. (389)

①은 좌익계열인 청죽회와 제중일보의 조사 취합자료인 「제주 4·3사건 희생자 목록」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우익 토벌대에게 학살된 민간인들의 진술이 기록되었으며, 육지부 무당들에게 곁을 맡길 희생자 명단이 적혀 있다.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②에서는 우람한 장수의 모습으로 변한 아기장수가 관졸들에 의해 두 번째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서술된다. 죽어가는 아기장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큰 한숨 소리와 함께 그대로 무너져 내려앉으며 주위를 시뻘건 핏물로 물들”인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소설의 구성 순서에 따라 이해하면, ①에서 토벌대에게 죽임을 당한 한 가족의 모습에서 환기되는 다양한 이미지들, 즉 집을 태우는 붉은 “불길”, 토벌대가 쏜 총을 맞고 흘리는 피 등의 이미지는 ②에서 아기장수가 흘리는 “시뻘건 피”의 이미지와 통합되어가면서 제주도의 비극성을 강조한다. 『신화를 삼킨 섬』이 5·18 광주항쟁 직전의 시간을 서사적 시간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따라서 붉은 이미지의 인유들은 제주도의 비극성을 광주까지 이끌고 간다.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생산한 주체인 토벌대나 신군부 등이 행사했고 또 행사할 파괴력을 예감하게 한다.

하지만 이처럼 “국가 중앙 권력에 의한 제주도 섬 주민의 전면적 ‘희생’ 쪽으로 이끌고 가는”(41) 「제주 4·3사건 희생자 목록」 문건의 결과는 재일 교포인 고종민에게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는 문건을 “매번 첫 페이지부터 다시 훑어 내려가곤 하는 자신을 알 수 없”(40)다고 고백하면서, “이 섬에 무장대의 책임으로 기록될 희생자는 하나도 없”(46)는지 의문을 갖는다. 이에 대한 답은 목록 명단 앞에 표시된 “^”, “#” 부호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부호는 진혼굿을 치러준 이름이고, #부호는

특히 유념해서 진혼굿의 대상자로 골라야 하는 이름을 의미한다. 목록이나 부호들은 희생자의 아픔과 그에 대한 위로를 취사선택하는 방식을 보여주면서 4·3의 원인은 단일하게 국가권력의 방식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러 인유들은 독자가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기회와 시야를 제공한다.

### Ⅲ. 날개와 용마 : 추락과 상승의 인유 복합체

인유된 아기장수 설화와 제주도 아기장수 설화 등에서 형상화된 아기장수와 용마의 모습은 날개의 이미지와 통합돼가면서 상승과 추락의 이미지 패턴을 생성해간다. 이 패턴은 인유의 해석 과정을 가능케 하는 ‘인유 복합체’로서 서사적 주체인 심방들의 태도와 행위를 맥락화하는 데 기여한다.

① 뒷산의 용마 바위에 오랜 치성을 드린 끝에 마침내 소원하던 옥동자를 낳았다. 그런데 아기가 놀랍게도 두 어깻죽지 밑에 접힌 날개를 달고 있었다. (7)

②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의 온몸에 번쩍번쩍 비늘이 덮여 있고, 양 쪽 겨드랑이 밑에선 조그만 날개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 제주도로 들어온 김통정은 (...) 제주섬을 다스리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되 돈이나 쌀이 아니라 반드시 잿가루 닛 되와 빗자루 한 자루씩을 마치게 했다. 뿐더러 그 잿가루를 토성 위에 잔뜩 뿌려두었다가 그를 쫓아오는 조정의 관군이 멀리 바다 위에 나타나기만 하면 날랜 말 꼬리들에 빗자루를 달아매고 채찍을 세차게 휘둘러 성벽 위를 내달렸다. 그러면 먼바다 위의 배에서는 먼지 안개가 자욱한 섬의 모습이나 방향을 제대로 가늠할 수 없어 번번이 그대로 물러갔고, 김통정 장군은 위세가 더욱 높아졌다. (...) 어느 해에 김방정 장군이 거느린 고려군이 김통정을 잡으러 갔다. (...) 그러자 머리가 뒤로 젖혀진 김통정의 온몸을 감싸고 있던 쇠갑옷 목 비늘에 틈새가 벌어졌고, 그 순

간 모기로 변해 있던 김방경은 칼을 빼어 그 틈새로 김통정의 목을 찢러 베어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며 땅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구는 김통정의 머리가 다시 몸으로 달라붙지 못하도록 잿가루를 뿌려두었다. (171-175)

위의 인용된 텍스트에서 보듯이 ①아기장수 설화와 ②제주도 아기장수 설화에서 아기장수와 김통정은 모두 날개를 달고 태어났다. 서사 전개에서 두 장수의 날개 이미지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①에서는 날개의 이미지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②에서는 날개의 이미지가 하늘로 상승하는 이미지에서 땅으로 추락하는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①에서 아기장수는 접힌 날개를 달고 태어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바위에 갇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날개를 펼치지 못한다. ②에서 김통정은 태어나자마자 날개들이 돌아났다. 뛰어난 도술로 삼별초의 우두머리가 되었지만, 그의 힘을 두려워한 관군을 피해 제주도로 들어간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주도에서 그는 날개를 펼쳐 자신의 절대왕국의 “성벽 위를 내달”리며 위세를 드높인다. “성벽 위를 내달”리며 위세를 드높인다. 하지만 김방경이 그를 잡으러 제주에 왔을 때, 김통정은 날개를 펼쳐 도망가다가 김방경의 칼에 찢려 피를 흘리며 땅바닥으로 떨어진다. 여기에서 날개의 추락 이미지는 용마의 이미지와 결합하면서, 상승의 이미지로의 전환 가능성을 얻는다.

아기장수 설화에서 용마는 아기장수의 유일한 조력자로, 그의 죽음을 유일하게 애통해한다. 이와달리 인용된 제주도 아기장수 설화에서는 아기장수를 돕는 용마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중심 서사에서 어머니가 두 아들에게 자신의 태몽에 관해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내가 너를 가질 때 흰 용마가 날개를 접고 내 품으로 안겨드는 꿈을 꾸 었더란다. 날개를 접은 용마였기 망정이지 날개를 펴고 나는 용마였다면 네가 제명에 못 죽을 큰 불행을 당할 태몽이었지 뭐냐. 원래 기운은 비범하지

만, 그건 우리 당주님께서 네게 그 기운을 조용히 잘 다스려 이 일을 이어받  
게끔 운명을 점지해주신 것이다.”(69)

어미는 결국 큰아이를 단념하고 철이 아직 덜 든 작은아이에게 소망을  
옮겨 실었다.

“내가 너를 가질 때 용마가 흑단 같은 날개를 압전히 접고.”(70)

추 심방 어머니는 첫째 아들인 추 심방이 자신의 무업을 이어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어린 추 심방에게 흰 용마가 나온 꿈을 들려주며 심방이  
될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들에게 검은 용마가 나온 꿈을 이야기하면서 무업을 이어받기를  
요구했지만, 그도 형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청을 거부하고 산으로 도망  
갔다. 이 당시에는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 수많은 주민  
이 목숨을 잃었다. 추 심방은 많은 토벌대가 산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산에서 생활하는 동생이 늘 걱정이었다. 어느 날 그는 아우를 보고 산에  
있었다는 이유로 누명을 쓸까 봐 서둘러 그에게 자수를 권한다. 하지만  
그의 권유를 따라 경찰서에 간 아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 추  
심방은 동생에 대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무업을 이어받는다.

태몽에서 등장한 용마는 흰색과 검은색의 대립적 이미지로 형상화된  
다. 이 색의 대립은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좌우 이념의 대결을 상징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대립은 서사에서 특정한 사건을 발생  
시키지 않는다. 용마의 이미지는 아기장수 설화에서 용마의 이미지와 통  
합되면서, 의미를 지닌다. 추 심방에게 용마는 아우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며 홀로 생존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아기장수 설화에서의 용마  
는 구세주인 아기장수를 태우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비참한 존재이자 고  
된 현실을 견어내기 위해 기다리고 믿어야만 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서  
사에서 추 심방을 포함해 제주 심방들에게 용마는 대립적 이미지로 포섭  
될 수 없으며, 대립을 넘어서 속죄와 애도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심방들

은 한얼회와 청죽회 어느 쪽에도 뜻을 두지 않고 침묵한다. 4·3사건 희생자 목록에 편이 갈려서 이름이 적힌 혼백은 씻기지 않고, 편이 밝혀지지 않은 혼백들만 씻기고자 한다. 이는 “어떤 차가운 아집의 갈등과 대립”(153) 구도에서 그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섬사람들만의 자생적인 공동 운명체를 꾸려나가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비롯된다.

추 심방 어머니의 꿈속에서 용마는 모두 “날개를 접은”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날개의 접힘은 날개를 다시 펼칠 수 있음을 전제한다. 용마는 아기장수의 추락을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날개의 하강 이미지를 상승 구도로 변이시키면서 추락과 상승의 패턴을 형성한다. 이 인유적 이미지들의 체계는 신내림을 받고 평생 무당으로서 살아야 할 운명에 놓인 해정리 뱀 강신인 변 심방의 딸 금옥에게도 형성된다. 금옥은 심방이 되지 않기 위해 어머니가 모시는 구렁이 신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제주도를 떠나고자 한다. 그래서 외지에서 섬을 찾아온 정요선에게 자신을 데리고 제주도를 떠나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결국 신병을 앓게 되어 신을 받아들인다.

- 옛날에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하여 귀하게 태어난 상제님의 자식 하나가 있었는데, 위인이 자꾸 천상의 영화를 마다하고 어머니의 땅으로 내려갈 생각만 하고 지냈다. 아버지 상제님이 이를 괘씸히 여겨 결국 그 별로 그에게 여자의 모습을 주어 이 막다른 제주 섬으로 쫓아 내려보냈다. (108)

변 심방이 모시는 암신령은 상제(上帝)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천상의 영화를 마다하고 땅으로 내려가고자 했다. 아버지가 이를 괘씸히 여겨 “그 별로 그에게 여자의 모습을 주어 이 막다른 제주 섬으로 쫓아 내려보냈다.” 더욱 운이 없게도 신은 흥측스러운 뱀의 모습이 되는 별을 받았다. 변 심방은 이 버려진 “거지 귀신들”(108)을 받아들여 신으로 받들고, 또 그녀의 딸인 금옥도 그 신을 받아들인다. 이처럼 하늘에서 제주 섬으로 추락한

신들에게 믿음을 구하고 동시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신의 운명을 위로한다. 이 과정에서 심방들은 추락한 신의 이미지를 상승의 이미지로 변화시킨다.

#### IV. 삼김과 울음소리 : 인유의 치유 가능성

『신화를 삼킨 섬』에 통합된 여러 인유들은 주제화를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하며, 그것의 의미는 에필로그 마지막 부분에서 서술된 다음의 문장으로 수렴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끝내 그 구세의 영웅 이야기를 잊지 못했고, 언제부터인지 그 아기장수와 용마가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 속의 꿈과 기다림이 없이는 아무래도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389-390)

2장과 3장의 논의를 참고하면, “이야기 속의 꿈과 기다림”은 도민들이 아기장수와 용마를 받아들여 그들의 아픔을 품어 주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신화를 삼킨 섬’의 제목에서 유추해보자면, 무엇을 삼킨다는 것은 자신과 이웃의 아픔을 삼켜주며 자신을 치유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삼김의 이미지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인유적 뒷받침을 얻는다.

① 그리고 그때 어디선지 다시 슬픈 말 울음 소리가 세 번 울리더니 갈라진 용마 바위 뒤편에서 눈부신 날개를 단 용마 한 마리가 불쑥 솟구쳐 올라 뒀산 너머 하늘로 멀리 사라져갔다. 새로 태어날 장수를 태우러 왔다가 주인을 만나지 못한 용마였다. (204-205)

② 하고 보니 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뒤늦게 터져 나온 김상노씨의 느닷없는 통곡 소리는 차라리 물색없는 이변에 가까웠달까. 그렇듯 망자들

의 혼령이 떠나가고 굿판이 다 기울 때까지도 그는 마치 남의 굿을 구경하듯 갈수록 더 덤덤한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건 여태 자신의 슬픔을 안으로 눌러 삼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탓인지 모른다. 아닌 게 아니라 그 할머니에 대한 상노 씨의 회한은 그렇듯 깊었을 법도 하였다. 그래 그는 아직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 혈육들의 혼령을 쉽게 떠나보낼 수가 없었는지요. 한동안 출판을 이끌던 유정남이 드디어는 그 멍청스런 꼴을 하고 앉아 있는 김상노씨까지 한데 끌어들일 양으로 그의 어깨를 부추겨 일으키려 했을 때였다.

“할무이이! 아이고 우리 할무니이!”

김상노 씨가 졸지에 그 유정남의 품으로 고꾸라져들며 치맛자락을 부여 쥐고 통곡 소리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중략)

유정남이 그 상노씨의 등을 어루만지며 짐짓 우스개 조로 달래려 했지만, 위인은 그렇듯 뒤통에 복받쳐 오는 슬픔을 어찌하지 못했다. (중략)

“그래, 울어, 실컷 울어! 기주 씨는 이제사 긴 세월 집안 귀신들 가위놀림에서 풀려난 게야. 그래 이제서 눈물이 나고 통곡이 터져 나온 게야. 그러니 실컷 울고 소리쳐서 마음속 어둠을 시원하게 다 씻어내어!” (369-370)

프롤로그인 ①에서 용마는 세상을 구원해줄 영웅을 태우기 위해 아기장수를 찾았지만, 결국 죽은 아기장수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떠날 수밖에 없었다. “슬픈 말 울음 소리”는 아기장수의 죽음과 영웅이 탄생하지 못하는 시대적 비극에 대한 슬픔을 의미한다. 이 용마의 울음의 이미지는 4·3 역사 씻기기 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씻김굿의 한 장면인 ②에서 나타난 기주 김상노 노인의 통곡 소리와 연결되어 다른 의미를 얻는다.

김상노 노인은 씻김굿의 대상인 4·3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의 유족으로 가족과 이웃의 죽음을 목도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물이다. 그는 과거에 경험했던 죽음의 광경을 잊으려고 했다. 그 강한 의지는 그를 침묵하게 했고, 표정을 짓지 못하게 했다. 그 강한 의지는 그를 표정 없는 얼굴로 침묵하며 살도록 했다. 그는 굿의 현장에서도 “굿판이 다 기울 때까지도 그는 마치 남의 굿을 구경하듯 갈수록 더 덤덤한 얼굴을 하고

앉아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죽은 망자와 마주하고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침묵을 깨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망자의 영혼을 향해 용서를 빌었다. 씻김굿판에서 “무녀는 죽은 망자나 그 일족뿐만 아니라 이날의 굿청 사람들을 비롯해 이 섬 모든 사람들의 죽음과 삶을 함께 씻”(361)졌다. 이 굿판에 참여한 이 과장, 양 교수, 고종민은 유정남의 신들의 노랫소리, 김상노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sup>16)</sup> 유정남이 김상노의 내면에 쌓여있던 상처를 목소리로 재현하자, 그동안 감정을 보이지 않고 침묵하던 그는 눈물을 흘린다. 그가 슬픔을 보이며 자신을 치유하는 모습에서 굿판에 참여한 사람들도 알지 못할 감정을 경험한다. 굿판의 소리들은 죽음과 삶을 함께 씻기면서 김상노가 다시 삶을 이어가도록 한다. 가족과 이웃의 원통한 죽음을 씻기고, 그들의 그 죽음에서 홀로 살아남았다는 죄의식을 씻김으로써 김상노 노인은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죽음 인식을 삶의 문제로 이동시키는 주제적 차원의 수사방식은 아기장수 설화의 배치와 관련된다. 인유된 설화의 서사는 죽음을 경계로 나누어졌다. 프롤로그에서 아기장수는 죽었다가 에필로그에서 또 한 번 죽는다. 이 죽음의 이미지는 아기장수 설화와 『신화를 삼킨 섬』을 관통한다. 리프톤에 따르면 인간은 죽음과 맞닿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죽음 이미지들을 갖게 되고, 이 죽음 인식을 통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삶의 몸짓을 보여줄 수 있다.<sup>17)</sup> 그는 『단절된 연결』에서 “우리는 심상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며 인간이 자기 주변의 세계와 자신이 연결되어 있음을 이미지로서 감각한다고 설명한다. 인간은 이미지를 상징화하는 과정에서 세계를 구조화하고 그 안에서 자신과 세

---

16) 작가는 수사적 상황인 굿판에서 인용한 제주도의 서사무가들은 아기장수설화와 수사적인 방식에서 다르게 활용된다. 신화는 수행적 차원에서 굿판에 참여한 작중인물들의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 활용된다. 이와 달리 아기장수 설화는 작가에 의해 직접적으로 서술되고, 제주도 아기장수 설화는 주인공 고종민에 의해 줄거리 형태로 서술된다.

17) Ibid., p.3.



상과의 연결을 지속화하기 때문에<sup>18)</sup> 만약 죽음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자신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잃게 된다면, 삶의 연속성을 주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들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sup>19)</sup>

이 사유에 따르면, 2장 ‘무덤과 섬: 죽음의 인유 공간’에서 살펴보았듯이 죽음의 이미지는 인유의 공간을 형성하면서, 아기장수 설화의 다양한 이미지를 모으는 과정을 추동한다. 즉, 독자는 인유의 공간에서 경험한 죽음의 이미지들에 대한 기억들을 통해<sup>20)</sup> 아기장수 설화에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추론해 낼 수 있으며, 이 기억의 움직임이 『신화를 삼킨 섬』의 주제를 이끌어갈 수 있다. 따라서 독자는 독서의 과정을 통해 비극적인 역사로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온 제주도민들이 죽은 아기장수를 기다리는 것은 세상과 연결되기 위한 치유의 몸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sup>21)</sup>

## V. 나가며

이 글은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아기장수 설화를 작가에 의해 고안된 인유적 텍스트로 보고, 이 인유의 해석 과정을 가능케 하는 인유 복합체의 형성 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이로써 인유의 이미지가 다른 패턴으로 재형성되며 어떠한 이미지 패턴을 생성하는지, 그래서 주제화에 기여하며 “중심적인 의미를 소통하기 위한 주요 장치”<sup>22)</sup>로 활용되는 양상을

18) 리프톤은 이 과정을 ‘형성적 상징화’로 정의한다. op.cit, pp.18~25.

19) Ibid., pp.179~199.

20) Pasco, op.cit., p.96.

21) 세 명의 주인공이 이 곳에 참여한 이후에 보이는 변화는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나환자였던 아버지가 소록도에서 죽고 자신은 미감이 출신이었던 정요선은 자연스럽게 자기 뿌리에 대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낀다. 고정민도 마찬가지로. 일본으로 귀화한 아버지가 “이미 계엄령까지 선포한 한국 군부”의 정치판에 대해 우려하며 귀국을 중용하는 편지에도 그는 이 섬 문화와 섬사람들의 삶에 자신도 알 수 없는 애정이 싹트고 있다고 답한다. 추만우 역시 심방인 아버지의 뜻을 받아 무업을 잇기로 한다.

살펴보고자 했다. 인유된 설화들에서 도출되는 아기장수, 무덤, 날개, 용마 등의 이미지들이 서로 결합하고 작중인물들의 발화, 서사적 상황, 서술 등에 관여하면서 인유의 결합, 인유의 복합체 등을 이루는 양상을 살펴봐왔다. 이 과정에서 각 이미지들이 서사적 공간을 인유적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상승과 추락의 인유 통합체를 형성하면서 인물 행위의 의미를 맥락화하는 양상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인유의 활용이 치유의 공동체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천착해 내고자 했다.

아기장수 설화의 인유는 독자들이 아기장수의 죽음의 불가피성과 강하게 대면하게 하여 제주도의 비극성을 형성하는 원천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이 죽음의 교훈을 일반화하여 아기장수와 용마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조장하였다. 이 인유는 주제의 전개를 지원하면서, 독자가 자신 안에서 아기장수 설화를 다시 읽을 수 있는 관점을 제공했다. 이러한 경험은 아기장수의 죽음의 이미지에서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추론해 낼 수 있게 한다.

‘신화를 삼킨 섬’이란 소설의 제목에서의 ‘섬’은 고립과 단절을 제시하는 은유가 아니다. 신화를 삼키는 섬의 은유는, 독자에게 비록 버림받은 신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신들의 세계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신들의 세계로의 이행을 기다리고 꿈꿀 것을 요구한다. 누군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유는 그 죽음이 있기 전 그의 삶의 모습 안에 있던 자신을 위로하는 일의 다름 아니다. 아기장수에 대한 죽음의 이해는 아기장수와 그 장수를 기다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일이다. 따라서 인유는 치유의 공동체로 이행할 수 있는 힘이 된다.

---

22) Ibid., p.20.

## 참고문헌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문학과 지성사, 2011.

이소연,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신화적 리얼리즘 양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74집, 한국문학회, 2016.

임철호, 「아기장수설화의 전승과 변이 - 아기장수설화와 홍길동전」(1), 『구비문학연구』 제3집, 한국구비문학회, 1996.

주지영, 「‘신화’와 ‘전설’ 콘텐츠의 소설적 변용과 의미화 전략-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제19호, 구보학회, 2018.

한순미, 「역사적 물음을 구조화하는 이미지의 위상학-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39, 현대문학이론연구학회, 2009.

Allan H. Pasco, *Allusion: A Literary Graft*, Rookwood Press, 2002.

Robert Jay Lifton, *The Broken Connectio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9.

# An Allusion to Agijangsu's tale and Healing Community in Lee Chung-jun's <The Island that Swallowed Myths>

Im, Bo-Ram

This article tried to examine the process in which the integration of the allusion created by the two texts achieves an interpretative expansion by reading Cheong-Jun Lee's <The Island that Swallowed Myths>(2003) as a text alluding to the tale of the baby heroine from the perspective of healing.

This purpose started from the following curiosity. Why did author Lee Cheong-jun compose a novel by alluding to the tale of the baby heroine? Why did he place the narrative of the universal baby longevity handed down in Korea in the prologue and epilogue, and place the baby longevity tale handed down only in Jeju Island in the central narrative of the novel? What is the effect of the contrast through the two tales? While seeking an answer to this question through allusion, I discussed how the allusion of a tale functions in the subjectization.

In the main body, the process of achieving metaphorical integration through the collision of various images appearing in the alluded text (Agijangsu's tale, Agijangsu's tale in Je-Ju Island) and the alluded text (<The Island that Swallowed Myths>) was discussed in three aspects. By dividing each image into 'tomb and island', 'wings and dragon horse', and 'swallowing and crying', these complex images form an allusive space, contextualize the meaning of the character's actions, and finally While contributing to thematicization, the process of leading readers to the point of view of healing was revealed.

Keywords : Lee Cheong-Jun, The Island That Swallowed Myths, Agijangsu's tale, Je-Ju Island, Allusion, Healing Community

투고일: 2023. 03. 25./ 심사일: 2023. 04. 09./ 심사완료일: 2023. 04. 12.